

### 다섯 살 바우덕이가 땅에 금을 긋고 줄을 타던 ① 안성 청룡사(靑龍寺)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내린 폭설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세상엔 눈과 눈이 아닌 것 두 가지밖에 없었고, 그 세상으로 나온 순간 눈앞엔 가야만 하는 길이 바라만 보고 싶은 길이 되어 하얗게 휘날리고 있었다. 청룡사로 가는 길은 그렇게 나서야 했다.

안성 땅에 들어서서도 눈발은 여전했다. 서운산자락을 붙잡을 때 좁 눈발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쉼 없이 내리는 눈발이 세상 풍경을 남김없이 지워가고 있을 때, 그 하얀 풍경 마지막에 청룡사가 남아 있었다. 바람이 흔들고 지나간 풍경 소리와 마당에 쓰러진 석탑의 그림자가 도량에 있음을 알려줬다.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운부대사와 장길산은 이곳에서 미륵의 세상을 꿈꿨다. 숨 막히던 시대에 숨죽여 살았던 그들이 꿈꿨던 미륵의 땅은 자동차를 끌고도 가기 힘든 곳이었다. 눈발이 찾아들었다.

청룡사는 고려 원종 6년인 1265년에 명본 스님이 창건하여 대장암(大藏庵)이라고 부르다가, 공민왕 13년인 1364년에 나옹 스님이 중창하고 이름을 청룡사로 개칭했다. 청룡사라는 이름은 절터를 찾아다니던 나옹 스님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청룡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멀리 서운산이 눈 속에 서있다. 아득한 그 옛날 나옹 스님이 바라 보던 청산과 창공은 스님에게 말없이, 티없이,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갈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고 했고, 스님은 '말없이 살라하네'로 시작해서 '말없이 가라하네'로 끝나는 시를 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시었다.

하얀 마당 끝에 대웅전이 서있다. 균형미와 굴곡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대웅전은 보물(824호)이다. 청룡사에는 대웅전 외에도 명본 스님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삼층석탑과 청룡사역산화괘불탱(보물 제1257호), 동종(보물11-4호), 청룡사감로탱(보물 제1302호) 등의 문화재가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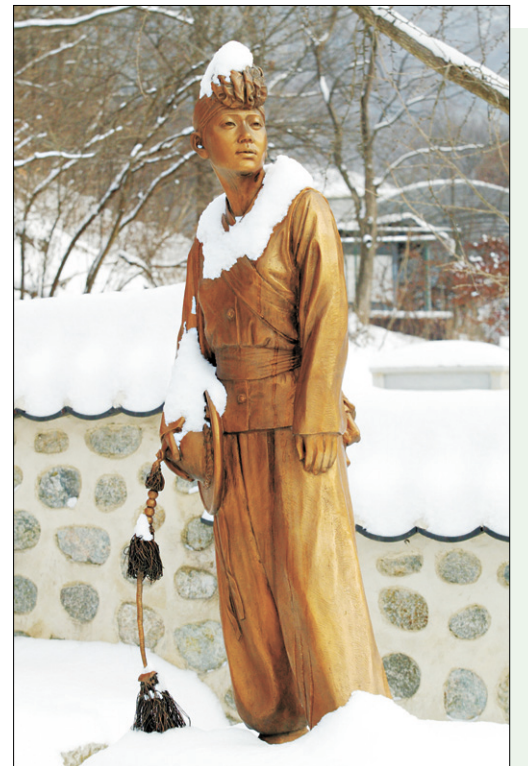
청룡사가 있는 청룡리는 남사당의 마을이었다. 청룡사 위에 불당골이 그들의 마당이었고 청룡사 또한 그들의 마당이었다. 청룡사는 사당패의 그늘이었고 사당패는 그런 청룡사를 도우며 함께 살아왔다. 청룡사 입구에 있는 사적비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불당골로 오르다보면 조선 남사당의 최초이자 마지막 여자 꼭두쇠였던 바우덕이 사당이 있다.

난전을 떠돌던 어린 바우덕이를 사당패가 거두고 다섯 살 바우덕



보물 제824호인 대웅전과 명본 스님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삼층석탑(왼쪽)이 할박눈에 덮여있다.

사당에 위치한 바우덕이의 동상(아래).



## 숨 막히던 시대를 살던 그들이 꿈꾼 미륵의 땅

이 땅에 금을 긋고 줄을 타기 시작했다.

바람이 여닫는 사당 대문 위로 상모를 든 그녀의 동상이 브로마이드처럼 걸려있다.

바우덕이는 그 시대의 '스타'였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로 시작하는 바우덕이 노래가 당시를 말해주며, 소설 '장길산'에서는 '묘음'이라는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시인 김윤배는 그의 시 '여사당 바우덕이'에서 바우덕이의 일생을 시로 풀어 썼다. 타고난 미색과 총기로 사당패의 상징적 존재가 되

던 그녀의 불꽃같은 삶과 숨 가뻐던 상민들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

안성 난장 문화 많고 사람 많아  
은근짜 다방모리 화랑우너 웃음 질련하고  
거간꾼 장돌뱅이 싸움질로 날 저무는  
홍청거리의 난장마당 가을결이 끝낸 장마당  
풍성한 인심 돌우어 펼치는 안성 청룡 남사당애 풍성한 놀이판...

뜯쳐 상쇠 바우덕이 신들린 쇠가락  
상것들 열우열우 신명 부르고  
뜯쳐 어름산이 바우덕이 시원스런 아너리 사설  
상것들 응어리진 마음 풀어내리고  
뜯쳐 덧피겨서 바우덕이 불길 일으켜 타고르는 세상

바우덕이는 폐병에 걸려 스물 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청룡사 아래 골짜기에 그녀의 묘가 있다. 바우덕이가 눈을 감은 때도 겨울이었다. 공풍 일어붙은 땅이 파지지 않아 흙을 모아다 덮었다. 1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 그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에서 묘비를 세웠다. 눈 덮인 그녀의 무덤 위로 겨울 바람이 지나갔다. 안성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해마다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를 기리고 남사당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전승 발전시키고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운부대사와 장길산이 꿈꿨던 미륵의 세상도 바우덕이가 일으켜

타오르던 세상도 다 지나간 세상이 되었다.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각자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미륵불의 정도도 지금 각자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생각하며 청룡사를 나섰다.

청룡사 가는 길에는 포도밭이 많다. 안성 포도마을이다. 포도마을을 지나면 바우덕이의 묘가 나오고 서운산이 보이는 입구에 시원한 청룡 저수지 있는데 여름엔 수상스키, 보트 등 여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바우덕이 사당 옆 골짜기에는 아늑한 카페도 하나 있다. 법당의 오래된 단청과 역사 깊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도 사찰 여행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사찰을 지나간 이야기를 따라 '그 곳'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사진 = 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룡사 부도밭을 지나 불당골에 위치한 바우덕이 사당.



청룡사 진입로 약 1km 전에 위치한 청룡저수지.

### 청룡사 가는 길

안성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339번 지방도(서운방면)로 11Km 쯤 가면 34번 국도와 만나는 산평 삼거리에서 진천쪽으로 좌회전 하여 2.2Km 정도 가면 오른 쪽에 주유소, 왼쪽에 청룡저수지가 있는데 좌회전하여 저수지제방으로 부터 1.3Km 더 들어가면 청룡사다.

대중교통은 안성시에서 청룡사까지 군내버스 1일 13회 운행, 30분 소요. 청룡리 버스정류장에서 200m.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제품 사용자  
사찰, 선방, 수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마음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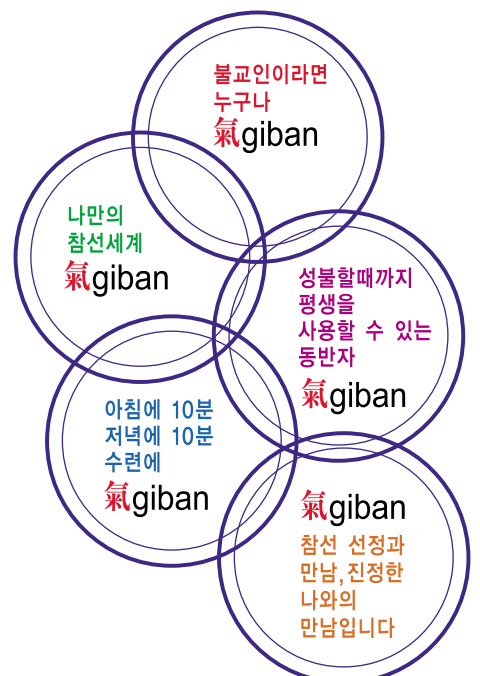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있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울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데 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들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허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살상의 특별한 소식!!

현불살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주문은 현불살!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 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살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